

歷史哲學에의 關心

分析으로부터 綜合에 (上)

韓雪野

나는 이른바 史學에 關한 아무런 豫備知識도 업다. 史學을 體系的으로 研究해보려고 한 일도 업다. 잇다면 다만 社會學에 關한 若干의 見識이 잇슬 뿐이다.

社會學도 藝術史나 宗教史와 마찬가지로 文化科學的 史學의 하나이니, 그러므로 내가 萬一 史學界에 보내고 심흔 말이 잇다면, 自然 이 範圍內에 局限된 것일 것은 不可避의 理勢다.

그러나 여기 또 하나 不幸한 일은 아직 나는 朝鮮에 잇서서 眞正한 意味의 史學을 發見하지 못하는 그것이며, 따라서 史學界라고 불리질 學問的 權威의 存在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다. 이것이 萬一 오로지 나의 寡聞의 탓이라면 오히려 多幸한 일일 것이나, 그러나 생각컨대 이것은 다만 나의 寡聞의 罪 뿐이 아니라 事實에 잇서서 眞正한 史學이라는 것이 업는 까닭이 아닐런지.

그러면 여기서 所謂 史學家라고 불리지는 이들이 抗議를 提起할런지도 모른다. 朝鮮學界에 史家가 잇고 史學文獻이 잇지 안흐냐고……그러타. 나는 위선 이 말을 是認하지 안힐 수 업다. 歷史學도 잇고 史學家라고 불리질만한 이도 잇는 것이 事實이다. 果然 우리가 小中學 또는 專門學校에서 배운 歷史教科書類를 가르쳐서 거기 史學이라는 빛나는 이름의 全部를 許與할 수 잇다면 勿論 이것은 偶然한 事實일 것이다. 거기서 萬一 人類의 生存條件, 社會的 諸關係, 法律, 國家形態 및 그 觀念的인 上層建築인 宗教와 藝術의 生成과 그 相源을 發見할 수 잇다면 歷史教材는 더욱 훌륭한 史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果然 그런 類에서 어느 社會의 全體性的 實相과 時代推移의 本質과 人類의 動向—더욱이 그 時代時代의 人間의 社會的 分化, 또는 보다 根本的인 生産關係 等を 차질 수 잇는가? 허나 우리는 不幸히 거기서 局部的 現象의 皮相的 羅列은 發見할지언정 일즉 한번도 社會의 全體性을 發見한 일은 업다.

우리는 여기서 暫時 歷史의 조고만 一例로 아메리카의 南北戰爭의 史實을

벌어와도 조타. 이 當時의 大統領 린컨[링컨]은 黑奴(그 發見的 理由는 英國의 棉花紡織業에 基礎를 두고 있다.)解放의 聖者로서 불리지는 것은 이미 우리들의 常識이다. 그러나 여기서 當時 아메리카의 棉業生産에 있어서 南方은 黑奴를 絶對로 必要로 하였든 것과 그와 反對로 北方은 그 必要가 업섯든 것을 理解한다면 이 戰爭의 實相은 좀 더 明確해질 것이오, 또 린컨이 黑奴의 必要가 업던 北方의 雄이였든 것을 考慮에 넣는다면 黑奴解放에 있어서의 그의 『役割』을 또한 좀더 分明히 招來할 수 잇슬 것이다.

또 여기서 나폴레옹을 끄러와도 조타. 그가 萬古의 戰神과 가티 불리지는 것은 史學家의 입에서 뿐 아니라 우리들 門外漢의 常識이 되여 잇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덤허노코 戰神과 가티 우러러보는 史學家보다도 나폴레옹 自身이 좀 더 科學的, 具體的으로 自軍의 意義를 闡明하고 잇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에서 發見할 수 잇다. 그는 이러케 말하였다. —『三人의 마메르크人是三人의 佛蘭西人보다 優勢하다. 百人의 마메르크人是百人의 佛蘭西人과 어슷비슷하다. 三百人の 佛蘭西人是 普通 三百人の 마메르크人보다 優勢하다. 千人の 佛蘭西人是 恒常 千五百人の 마메르크人을 부스지른다.』

여기서 우리는 佛蘭西人이 마메르크人보다 秩序며 計畫的 訓練이며 또 武器의 發達(이것은 生産機關의 發達에 依存한 것이다.)에 있어서 越等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잇는 것이오, 따라서 나폴레옹의 戰術이 決코 戰神的인 先天性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잇스며, 同時에 그의 史蹟을 皮相的으로 羅列함으로써 그를 戰神的 存在로 推仰하는 이른바 史家보다 나폴레옹 自身이 史家를 無色케 할만치 自軍의 相貌를 훨씬 科學的으로 把握하고 잇슴을 알 수 잇슬 것이다. 이런 例는 어느 時代 어느 나라의 歷史에서도 無數히 發見할 수 잇는 것이다.